

시 김방순

너를 들여놓는다

바깥은 창문으로부터 온다
호수와 전망 좋은 아파트가 보이고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즐기는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고
한참 뒤에 유모차를 밀고 가는
할머니도 들어온다
들어오는 풍경 속에 내 마음도 들여놓는다
외로움도
흔들리는 마음도
물음표도 네모 칸에 들여놓는다
이곳에서는 외로움도 아름다운 풍경이 된다

흔들리는 마음도 흔들리는 나무가 되고
물음표도 바람 속에서 답을 찾는다
하루가 들어오고
한 달이 들어오고
일 년이 들어오고
한 생이 들어온다
네모 안에 스며드는 파스한 운기의 풍경
햇살도 들어오고
가끔 새들도 들어와 쉬어 간다
풍경과 풍경 사이 낮과 밤이 지나간다
지나간 내 사랑도 들여놓는다
이곳에서 햇볕 같은 온기로 앉아 있으면
그리움도 잔잔하게 변진다
보란 듯 물음표를 묻고 날아가는
너라는 새 한 마리

약력

- ▲동산문학 시 등단, 강원시조
등단
▲광주문협 이사, 광주시인협
회 회원
▲광양문학상 수상, 샘터 수필
문학상 수상
▲전국 호수예술제 시부문 우수상
▲시집: '내 삶이 햇살처럼', '마음의 선포'



시 김병중

죽순

봄내음 풍길 무렵
나는 서서히 감웃을 입는다

어디선가 화살이 날아와도
견딜 수 있는 봄을 입는다

우리가 나아가 갈 그 시간을
기다리며
온 땅을 움켜쥐고
세상에 얼굴을 내밀어 본다

온통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그들은
한결같은 간격으로 띠를 두르며
희망 가득 안고

저 파란 하늘을 향해
큰 꿈을 꾸며 오른다

희망찬 세상을 향해
저 높은 세상을 향해 오른다

약력

- ▲문학춘추 시 등단
▲광주문인협회 이사
▲장성, 담양 문인협회 회원
▲재능시낭송협회 광주지회 14대 회장



시 이동호

가을을 깨우자

신들린 잎새가 떠드는 지구
저 무변의 공간으로
남은 실루엣 한 폭을 꺼내 들고
미명의 잘게 썬 햇빛을 이야기한다

누이는 낡은 수틀에
진한 노을을 담았다
모멸의 먼 수평선엔
무인도처럼 자유가 떠있고
붉은 피 흘리기 위해

공원 옆 단풍나무는
이른 아침을 즐라댄다

못 균중의 얼굴로 그리움을 쏟아
말갱게 도란거리는 풍경을 보자
걸음을 쭉자
세월을 노래하자
아직은 가을거리리는 잠과 같은
가을을 깨우자.

약력

- ▲서라벌문예 시부문, 문학춘
추 수필부문 신인상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
학과 제37대 전국연합 학생회
장 역임
▲시집: '초록배낭의 향기'
▲2017 한하운문학상 수상
▲전통문화집시 대동문화 편집국장(현)



수필

방랑시인 김삿갓의 삶

'김삿갓 종명지'를 둘러보았다. 김삿갓이
운명할 당시 목었다는 정시룡의 사랑채와 시
비가 즐비하게 늘어진 '방랑시인 김삿갓' 공
원을 둘러보고 돌아간다. 그런데 김삿갓의 삶
이 마음에 걸린다.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먹
고 살 수 있었던 나의 삶과 비교되어 그린다.
김삿갓의 본명은 김병연이다. 1807년 4월22
일, 경기도 양주목에서 태어났다.
그는 16세 때 과거에 급제했다. 임금이 주
재하는 대과가 아니라 지방관이 주재하는
'향시'였다. 글재주가 좋았던 그는 '김익순을
논박하라.'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게 작성하
여 장원 급제했다. 어떤 내용인지 다시 읽어
본다.
선대왕이 보고 계시니 년 구천에도 못 가
며,
한 번 죽음은 가볍고 만 번 죽어 마땅하리
라.

네 치욕은 우리 동국 역사에 길이 웃음거
리로 남으리라!
이 글에서 김병연은 김익순을 신랄하게 논
박하고 있다. 흥경래 난이 일어났을 때 반군
에게 저항하지 않고 항복한 것을 논박하고,
왕을 배반한 것을 두고는 '동국 역사에 웃음
거리로 남으리라'고 논박하고 있다.
김익순은 누구인가? 1764년에 태어나서 18
12년에 생을 마감한 안동 김씨로 김병연의 할
아버지다. 매관매직으로 5품 관료인 선천부
사에 오른 자다. 선천은 평안북도에 있다. 그
는 선정을 베풀기보다 폭정을 일삼았다. 그
결과 흥경래 난이 일어났다. 그 해가 김병연
의 나이 4살 때인 1811년이고, 그 이듬해에 김
익순은 처형 당했다.
신랄하게 논박했던 김익순이 자신의 할아
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김병연은 부끄러웠
다. 무엇이 부끄러웠을까? 자기 할아버지를

논박한 일? 자기 할아버지가 폭정을 일삼은
일? 왕을 배신한 일? 어쨌든 김병연은 지속
하고 반성한다는 뜻으로 삿갓을 쓰고 다녔는
데, 이런 그를 '김삿갓'이라 부른다. 명국환은
'방랑시인 김삿갓'이란 제목의 노래를 불러
기렸다.
이런 김병연에 대하여 나는 서운한 마음
급할 수 없다. 그는 향시에 장원으로 급제한
자다. 벼슬에 오를 수 있었고, 남다른 영특함
으로 선정을 베풀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김병연은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22
세 때인 1829년 이후 1863년 3월29일까지 무려
34년 동안이나 방랑 생활을 했다. 하늘 보기
에 부끄럽다는 이유로 삿갓을 썼지만, 그것
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었다.
다음의 파자(破字) 일화를 읽어보라. 그가
무엇을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안주인 '人良卜(인량복일)하오리까?'
食(밥) + 上(윗) '밥상 올릴까요?'
친구 '月月山山(월월산산)하거든.' 朋(벗
뵙) + 出(날 출) '친구가 나가면.....'

김삿갓 '丁口竹天(정구죽요)구나' 可(올
을 가) + 笑(웃을 소) '가소롭다.' '이 亞心土
白(아심토백)아, 惡(나쁜 악) + 者(놈 자)
'이 나쁜 놈아,' 犬者禾重(견자화중)아! 猪
(돼지 지) + 種(씨 종) '돼지 새끼야.'
부끄러움은 없다. 김병연은 친구를 향하여
'돼지 새끼'라고 욕하고 있다. 분노만 차 있을
뿐이다. 친구를 향한 분노인 듯하지만 실상
은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향
한 분노이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달란트 이야기가 생각
난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종들에게 달
란트를 맡겼다. 세월이 흘러 종들이 주인 앞
에 나아와 회계한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다섯 달란트를 추가하여 열 달란트를 내놓았
다. 주인은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축
복한다.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두 달란트를 추
가하여 네 달란트를 내놓았다. 그에게도 '착
하고 충성된 종'이라 축복한다. 한 달란트 받
은 종은 받은 그대로 한 달란트만 가지고 왔
다.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저주한

다.
김병연의 삶은 어떠한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인가? 무등산 자락에는 전라남도 화순군
동북면에 '김삿갓 종명지'가 있고,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에 '김삿갓 동산'도 있다. 이런
시설을 통해 김삿갓의 삶을 기리고 있다. 어
떤 분은 그의 삶을 초야의 삶이라고 말하거
도 한다. 그런데 나의 생각은 다르다. 이야기
거리리는 될지 몰라도 반발을 삶은 아니다. 그
렇게 생각한다.

약력

- ▲공무원문학수필신인상
▲동산문학 작가회 회장, 광주문인협
회 이사
▲동산작가문학상 산문분야대상
▲저서: 연재시 '가족사랑 이야기', 수
필 '임진왜란상산'
▲강의: 일곡도서관수필 쓰기 교실(2018-2022)



고병균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 구독QR
시내 지역: 중앙지국 222-8171, 산수지국 224-4188, 학운지국 673-6836, 화정지국 372-9140, 금호지국 376-7153, 풍암지국 603-0311, 노대지국 674-3581, 상수지국 453-2554, 광천지국 374-2120, 진월지국 676-2726, 봉선지국 673-6836, 백운지국 673-0123, 두암지국 266-1920, 농성지국 362-4102, 유동지국 222-8171, 운암지국 529-3548, 용봉지국 261-1503, 신가지국 954-1420, 양산지국 574-3745, 하남지국 951-9954, 운남지국 952-1687, 오치지국 261-9461, 문흥지국 261-9462, 일곡지국 573-3200, 첨단지국 971-7374, 치명지국 371-9584, 수원지국 955-0451, 광산지국 944-0993, 목포지사 061)270-8689, 동목포지사 061)278-0740, 남목포지사 061)245-3797, 신안지사 061)980-8300, 순천지사 061)746-1600, 여수지사 061)651-6433, 나주시사 061)335-0005, 광양지사 061)793-6800, 구례지사 061)782-4696, 담양지사 061)383-5566, 곡성지사 061)362-5746, 고흥지사 061)832-6290, 보성지사 061)852-6644, 화순지사 061)373-7795, 장흥지사 061)863-6800, 강진지사 061)432-8899, 해남지사 061)535-5849, 영암지사 061)473-7151, 무안지사 061)453-3645, 함평지사 061)322-0882, 영광지사 061)353-5133, 장성지사 061)394-3636, 완도지사 061)555-0134, 진도지사 061)542-4330